



글로벌

대표이사 선임 주총 개최

글로벌이 오는 7월 23일 오전 10시 현대해상 빌딩 대강당에서 대표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이날 주총에서 김경배 대표이사 부사장(전 현대자동차 전무)과 장봉춘 전무(전 글로벌 해외물류사업부장)를 임기 3년의 등기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김경배 신임 CEO는 현대차에서 정몽구 회장의 비서실장을 맡아오다 지난달 글로벌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동방

1만5천톤급 자항선 신조

지난해 1월 외항운송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동방(대표 김진곤)이 주식회사 오리엔탈정공과 공동으로 1만5,000DWT급 자항선 1척 건조기로 했다.

자항선이란 엔진이 정착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바지선으로 이와 관련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시설투자를 결정했다.

선가는 298억원이며 동방이 총선가의 70%인 208억6,000만원을 투자하고 공동투자자인 오리엔탈정공이 30%에 해당하는 89억4,000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동방은 1만5,000DWT급 자항선에 대한 신규 시설투자를 통해 대형크레인 및 담수설비, 원유정제 시설 등 플랜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중량물 해상운송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동방 자이언트 제1호·제2호'와의 자항선 선대구축을 통한 선박운영 효율성 향상으로 수익

성을 극대화하고 자항선 선대구성으로 글로벌 해운선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투자기간은 2009년 6월부터 오는 2010년 7월까지라고 밝히고 있어 선박 인도는 2010년 7월경이 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SK해운

남부발전 장기 COA 낙찰

SK해운(사장 황규호)은 지난 6월9일 한국남부발전(사장 남호기)이 발전용 연료탄 장기 운송계약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SK해운이이번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선정되면 2010년부터 15년간 남부발전이 필요로 하는 발전용 연료탄을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연간 100만톤씩 총 1,500만톤을 운송하게 된다.

이번 입찰은 기존의 경쟁입찰방식과 달리 수송선사가 계약기간 중 수취하게 될 예상운임의 20%를 하주가 선지급하고 이를 선박구매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계약구조로 입찰 공고 당시부터 해운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계약 구조는 수송을 담당하는 선사의 입찰에서는 선지급 받은 운임을 선박구매에 투입함으로써 선박 획득시 수반되는 막대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하주는 전체 선박획득 비용이 낮아진 만큼 수송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결국 선사와 하주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의 이번 입찰에서 더욱 주목한 점은 한동안 국제입찰로 진행해왔던 관행을 깨고 다시 순수 국내 전용선사로 입찰자격을 주목했다는 사실이다.

해운업계에서는 한국남부발전의 이번 입찰 건이



지난해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국내 해운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국 해운업의 보호 육성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X팬오션

일본법인 자회사 2천만엔 증자

STX팬오션(대표 이종철 부회장)의 일본 현지법인인 STX Japan Corporation이 STX Global Logix에 2000만엔을 추가로 투자했다. STX Japan Corporation은 STX팬오션이 70.6%, (주)STX가 29.4%를 출자하고 있는 일본 현지법인이다. STX Global Logix는 STX Japan Corporation이 100%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다.

STX Global Logix는 이번 추가투자자 자본금이 기존 1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늘어나게 됐다. STX팬오션은 STX Global Logix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증자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STX팬오션은 지난 8일 STX팬오션의 미국 현지법인인 STX Pan Ocean (America), Inc.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4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자본금을 기존 50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로 증자한 바 있다.

또한, 6월 9일~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선박박람회 '노르쉬핑(Nor-Shipping) 2009'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마티 반하넨(Matti Vanhanen) 핀란드 총리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강덕수 회장은 6월11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국회의사당에서 마티 반하넨 총리를 만나 핀란드 조선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핀란드는 STX유럽의 크루즈·페리선 사업 부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STX핀란드 크루즈(STX Finland Cruise Oy)가 위치한 곳으로, STX핀란드 크루즈는 투르크(Turku), 라우마(Rauma), 헬싱키(Helsinki) 등 3곳에서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형 크루즈선 건조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투르크 조선소는 현재 세계 최대 크루즈선인 '오아시스 오브 더 씨즈(Oasis of the Seas)' 호를 건조하고 있으며, 올해 말 선박을 인도할 예정이다.

진양해운

권칭다오호 제주-군산 취항



진양해운(대표 홍승두)의 'QUEEN QINGDAO' 호가 6월26일 군산과 제주를 잇는 카페리항로를 개설했다. 진양해운은 군산-제주 서귀포항을 연결하는 연안카페리항로에 평택-청도항로에 투입됐던 1만6,549톤급 카페리선 'QUEEN QINGDAO' 호 군산-제주항로에 투입, 이날부터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QUEEN QINGDAO' 호는 여객 750명에 승용차 100대, 화물차 160대를 한꺼번에 선착할 수 있는 대형 여객선으로 선내에는 고급객실과 사우나, 레스토랑, 매점, 노래방, 오락실 등의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진양해운은 'QUEEN QINGDAO' 호를 군산항

국제여객부두에서 월, 수, 금 밤 10시에 출항해 다음날 오전 9시에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화순항에 도착하고 제주도에서 일, 화, 목 저녁 9시에 출항해 군산에 오전 8시에 도착하는 주 3항차로 운항할 계획이다.

한편 진양해운은 지난 4월말 군산-제주간 카페리항로를 취항시켰던 (주)J&K Line을 미래물류로부터 인수해 이름을 제주훼리(주)로 바꾸면서 군산-제주항로에 뛰어들었으며 앞으로 군산시, 서귀포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발전과 레저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항로는 6월 26일 전북 군산항을 출발해 다음날 9시 화순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정식 운항을 시작하며, 취항식은 6월27일 11시 화순항에서 취항식을 거행했다.

진양해운의 'QUEEN QINGDAO' 호 : 총톤수 1만6,485톤, 길이:150.1M, 폭 25M 기관출력: 1만9404kw, 최대속력: 25.4knot, 항해속력, 22.9knot.

팬스타라인닷컴

오사카 정기크루즈 개시

팬스타라인닷컴(대표 김현경 회장)의 팬스타크루즈가 7월1일부터 부산 오사카간 정기크루즈로 새로운 크루즈상품을 선보였다.

팬스타크루즈는 한일간 정기항로에 메인 공연을 비롯하여 포터서비스 등 다양하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통해 꾸준히 크루즈 요소를 가미해왔으나 이번 7월부터는 선상여행의 낭만을 극대화하고, 고품격 뷔페식 식사, 선상 카지노체험, 화려한 이벤트 등 본격적인 정기크루즈를 시작한다.

우선 부산-오사카항로는 세계 유산으로 출원될 만큼 일본 최대의 천혜 절경인 세토나이카이해협

을 경유하며 일본의 혼슈, 시코쿠, 큐슈를 연결하는 4개의 해협대교(칸몬 해협대교, 쿠루시마 해협대교, 세토 대교, 아카시 해협대교)가 장대한 경치를 이룬다.

또한 대한해협을 건너면서도 대마도와 이끼섬을 육안으로 감상할 수 있어 바다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이 선사하는 천연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팬스타크루즈측은 7월 1일 시작하는 오사카 정기크루즈 출항 기념으로 다양한 캠페인 쿠폰을 발행하여 기존 객실요금가에 추가 비용 없이 고급 크루즈식 뷔페식사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 지인단위로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객실단위 예약시 추가 할인 혜택 및 온라인 예약 고객을 위한 추가 할인 혜택, 단체 고객을 위한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할인 정책을 마련하여 비용의 부담은 줄이고 고객만족도를 올렸다고 전했다.

플라리스쉬핑

사무실 이전

플라리스쉬핑(대표 김완중)이 지난 6월12일부터 14일까지 사무실을 당주동 로얄빌딩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 이전했다. 전화번호와 팩스, 이메일 등은 변동사항이 없다.

- 이전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8층(우편번호 100-743)
- 연락처 : 플라리스쉬핑(T:02-2176-1111/F:02-733-1102~3)

한진

사랑의 봉사활동

한진(대표 석태수) 임직원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환자 전문병원인 경기도 광명 '성애병원'을 찾아,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한진 임직원 20여명은 6월12일 '성애병원'을 방문해, 생필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보훈환자 물리치료 지원, 산책 보조, 병실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영이념인 '나눔경영'의 의미를 되새기고,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진 측은 설명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한진 강영석 과장은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에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활동이지만, 보훈환자와 그 가족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조금씩 잊혀져 가는 호국보훈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눔경영을 확산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실천해 가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진중공업

첫 국적 쇄빙선 '아라온' 진수

21세기 보물창고라 불리는 극지 탐사를 수행하게 될 대한민국 첫 쇄빙연구선(碎氷研究船) '아라



온'호의 진수식이 6월11일 한진중공업(대표 이재용) 영도조선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적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건조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및 극지연구소, 선장, 승조원과 한진중공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라온'호의 성공적인 진수를 축하했다.

전 세계 모든 바다를 누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라온'호는 총 톤수 6950톤급으로 길이 110m, 폭 19m, 최고 속도 16노트(시속 30km 정도)의 연구선으로서 60여 종의 첨단 연구장비와 헬기 및 승조원 25명과 연구원 60명을 태우고 1m의 얼음을 시속 3노트로 연속쇄빙이 가능하며 한번의 보급으로 70일간 약 2만 해리를 항해할 수 있도록 건조된 최첨단 선박이다.

극지는 미래 국가이익이 직결되는 곳임에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쇄빙선이 없어 타국의 쇄빙선을 임대하여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탐사 및 연구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아라온호를 통해 극지를 비롯한 전 대양에서 국내 조선기술로 만든 첨단 쇄빙연구선을 이용한 종합해양과학조사 연구활동과 기지 건설이 가시화됐다. 무엇보다 극지인프라 구축으로 미래의 해양영토 선점과 극지해양자원의 심층 연구가 가능해져 극지 연구국으로서의 위상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1월 첫 국적 쇄빙연구선 건조 조선사로 선정된 한진중공업은 고기술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쇄빙연구선을 완벽히 건조, 진수함으로써 조선기술 '중가'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조선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그 동안 쇄빙선박 설계 및 건조경험이 없었다”면서 “첫 국적 쇄빙연구선의 성공적인 건조로 국가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첨단선박 건조 기술 확보로 향후 고부가가치선 시장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총 1,030억이 투입된 아라온호는 오는 9월 말 인도 후 쇄빙능력 시험항해를 거쳐, 2010년부터 본격적인 남·북극 탐사 및 연구, 보급활동에 나서게 되어 향후 극지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진해운

케이프벌커 1척 명명



한진해운이 현대중공업에서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을 명명했다. 한진해운(대표이사 김영민)은 6월 14일 현대중공업에서 18만dwt급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한진 시네스호' (Hanjin SINES)의 명명식

을 개최했다.

이 날 명명식에는 한진해운 김영민 사장의 도상미 여사가 스폰서로 참여했고 현대중공업 최원길 본부장, 관련 임직원이 참석해 한진 시네스호의 출발을 축복했다.

한진 시네스호는 18만dwt급 케이프사이즈 선박으로 연료유 탱크 보호 규정(FOTP-Fuel Oil Tank Protection)에 따라 연료유 탱크를 이중선체 구조로 설계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했으며 기존 엔진에 비해 연비 개선 능력이 탁월한 엔진이 장착돼 경제성에도 주안점을 둔 선박이다.

김영민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훌륭한 선박을 건조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린다. 세계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 한진해운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는 초일류 종합물류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현재 20여척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을 포함 총 100여척의 벌크 선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신조 사선 발주를 통해 보유 선박의 현대화는 물론 고객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향상 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네스호 재원은 △18만 재화중량톤 (DWT : Dead Weight) △폭 45 미터, 길이 284 미터 △적재능력(홀드) 19만9,500m³ △운항 속도 15.3 노트 △주요 화물 철광석, 석탄 등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물동량 증대 팔 걷어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서정호)는 6월10일 해운업계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평택항만공사는 이 자리에서 △평택항 부두시설 현황 △자유무역지역 조성계획 △화물유치 인센티브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선박 및 화물 입



출항료 전액 면제 등을 설명하고 평택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서정호 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반적인 수출 감소와 투자수요 부진에 따라 국내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잇따른 핑크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국내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 사장은 "적극적으로 해운업계 대표들과 만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 애로사항을 최대한 청취해 불황타개의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에는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이상복 회장, 연합해운 박태원 사장, 동신선박 박호건 사장과 엠에스씨코리아 강관유 사장, 양밍 한국 이순형 사장, 중국해운한국 이종희 사장 등 국내외선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해 평택항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마케팅 전개

인천항만공사와 화인통상 등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4개 물류기업이 합동으로 포도주 등 칠레를 대표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현지 업체를 상대로 인천항 포트마케팅 활동을 갖기로 해 주목된다.

인천항만공사(IPA·사장 김종태)는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동부익스프레스, 화인통상, 대우로지스틱스 및 ACT & CORE 등 4개 물류기업과 합동으로 총 6명의 대표단(단장 : 이홍식 부사장)을 구성, 6월22일부터 26일까지 칠레를 대표하는 포도주, 원목, 포도, 돼지고기 및 연어 등 5개 품목을 취급하는 현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천항 합동 포트

마케팅을 실시한다.

이번 포트마케팅은 인천지역 물류기업의 물동량 처리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5년째에 접어든 칠레와의 FTA 관계를 적극 활용해 2010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아암물류 2단지(263만㎡)의 FTA ZONE 내 칠레의 유망품목을 취급하는 대표기업의 물류센터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합동포트마케팅 기간 동안 출장단은 칠레 포도주 생산 4위 및 11위 기업인 Santa Rita社와 Undurraga사, 칠레 최대 원목 및 목재 생산업체 CMPC사, 칠레돼지고기 수출 6위 및 8위 기업인 AASA와 Coexca사, 칠레의 포도수출실적에 있어 20위권에 있는 Bauza사와 San Clemente사, 칠레 연어 수출 6위인 Mainstream사 등에 대한 인천지역으로의 신규 수입물동량 유치 및 신규 브랜드 공동 개발 등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적극적인 1대1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합동포트마케팅에 참가한 물류기업들은 칠레 유망품목의 상품 종류 및 가격, 교역조건, 수입 시 제반 장애요인 등도 세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이홍식 IPA 부사장은 "이번 합동 포트마케팅이 수도권권을 배후로 하고 있고 항만과 공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류중심항인 인천항의 강점을 칠레의 대표적인 기업에게 각인시키고 인천지역 물류기업이 인천항으로 실질적인 물동량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작년 하반기 세계 경기침체 이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귀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케이엘넷

Port-MIS 재정비사업 수주

2010년부터 선박 입출항, 화물 반출입 신고 등 16개 민원이 웹(Web) 서비스로 처리되고 경인, 호남, 영남 등 3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 표준화 및 단일화될 전망이다.

물류IT전문기업 케이엘넷은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17억원 규모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재정비 고도화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케이엘넷은 이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올해 연말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재정비 및 고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 웹(Web) 서비스 체제 개발을 통한 민원서비스 접근경로 다양화 ▲ Single-Sign-ON 기능을 활용한 항만 물류정보 서비스의 단일화 ▲ 물류정보의 공동활용에 의한 가시성 확보로 수출입 물류 리드타임 단축 등 생산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케이엘넷은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전국 무역항만에서 운영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및 운영하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수주와 관련, 그동안의 수행 경험과 노하우, 핵심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최적의 웹기반 PORT-MIS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케이엘넷은 지난 1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만물류정보화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와관련 케이엘넷 관계자는 "현재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미주지역 국가들이 국가 항만 물류 정보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3년간 이 부문에서 250억원 규모의 매출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도선사협회

'해운전문인력' 육성 장학증서 전달



한국도선사협회 송정규 회장은 6월22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실에서 '글로벌 해운 전문인력 육성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은 해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선사협회 장학사업의 취지에 따라 거행됐으며, 송정규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해양대학교 오거돈 총장, 해사대학장 박진수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 회장은 '글로벌 해운 전문인력 육성 장학생'으로 선정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4학년 민일로, 심영창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에 장학증서를 수여한 두 학생은 U.S. Merchant Marine Academy Kings Point에서 오는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협회에서 매달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하게 된다.

이날 수여식에서 도선사협회 송정규 회장은 "낮선 타국땅에서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해양인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말고 더욱 학업에 매진하여 훌륭한 해운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한국 해기사의 뛰어난 자질을 알리고 세계 해운업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선급

IACS 정기 이사회 개최

세계적인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 회장 오공균)이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제59차 국제선급연합회(의장 오공균, IACS)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세계해사안전기술의 촉진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1968년 결성된 국제선급연합회(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는 세계 선박량의 95%를 관리하는 대규모 선박 안전도 검사단체(선급)들의 연합이다.

IACS는 세계 해운업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위 TOP 10 선급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미국(ABS), 프랑스(BV), 중국(CCS), 노르웨이(DnV), 독일(GL), 영국(LR), 일본(NK), 이탈리아(RINA), 러시아(RS)가 가입돼 있다. 세계해상보험업계에서는 이들 선급에 등록된 선박들에게 선박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동 이사회의 정책결정은 세계 해운업계의 향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10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선급연합회의 이사회 임원 및 실무진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각종 국제 해사안전 관련 현안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이사회 만장일치로 선임돼 1년간 국내외 의장활동을 해온 오공균 회장의 오는 6월 말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의장선임도 진행됐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아시아 출신으로서 의장직을 수행한 오공균 회장은 유럽중심주의였던 국제해사업계의 풍토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높이고 업계의 조화로운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동·서양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며 “이번 이사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잘 마무리하고 향후 국제해사업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 개최지를 제주도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한국선급은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얼마 전 열린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등 규모 있는 국제회의를 치러낸 제주도의 관광 컨벤션 역량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중농산물 광양항 유치총력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이상조)이 중국 산둥성 평도시와 광양항 이용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컨공단은 6월9일 중국 평도시와 농산물 물류서비스 향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측의 실질적인 농산물 물류서비스 향상을 위해 비즈니스 교류 확대와 우호관계 증진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 날 체결식에서 컨공단 이상조 이사장은 “지난 4월 광양항의 복합운송지원창고 및 냉동냉장창고 운영사를 새로 선정했으며, 컨공단은 동 시설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내 농산물 물류 허브센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광양항을 농산물 수출입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 하주들의 물류비용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소개했다.

컨공단은 이번 중국 농산물 유치로 연간 6000teu 이상의 물량이 증대되고 향후에는 더 많은 농산물 관련 중국기업의 광양항 이용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로 광양항의 물동량 증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산학연 ETRS센터 개관



최근 재직 근로자들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지역 전략산업인 조선·선박·해양산업 근로자들을 위한 재교육 센터가 개설 운영된다.

한국해양대학교는 6월26일 교내 '50주년 기념회관'에서 부산광역시 정낙형 정무부시장, 김성광 부산지방노동청장, 김형호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김영석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어운태 영도구청장, 이인성 STX조선해양 부회장 및 조선, 해양분야 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연 ETRS(Education Technology Research Support)센터(소장 오진석 교수)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문을 여는 산학연 ETRS센터는 한국해양대가 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개설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노동부와 한국해양대 예산 약 100억원을 들여 조선, 선박 및 해양산업 특화사업 분야 세계 최고의 인력양성 및 재교육을 맡아 시행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중·대형 조선업체 110개사와 소형업체 69개사가 있으며,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우 전국에 735개사, 부·울·경에 555개사가 각각 있는 등 교육자원이 풍부한 데다 관련 산업의 기술력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이들 회사 근로자의 재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선박 및 해양 관련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기술수준을 세계수준으로 높여야만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부,울,경지역의 대표적인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인 산학연 ETRS센터는 우선 조선·선박·해양산업 근로자들의 기술력 등 직무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STX해양조선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한 80여개 협력업체 근로자와 부산 영도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150여개사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점차 교육대상 기업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조선기자재 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실업자와 한국해양대 관련분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올해의 경우 △선박제어 기초·실무과정 △선박전기기계 기초·실무과정 △선박자동화 기초·실무과정 △조선기자재 특수용접과정 △선박의장 설계과정 △선박기기 안정화 및 표준화 등 6개 과정을 교육하고, 2010~2011년에는 이들 과정과 함께 △선박 주기관 분해·점검·계측과정 △선박 주기관 성능 분석과정 △선박보조기계의 정비 및 검사과정 △승선실습 훈련과정 등 모두 10개 과정을 교육한다.

산학연 ETRS센터 소장 오진석 교수는 “이번 사업은 산학연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선·선박·해양산업 근로자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실업자와 대학 재학생의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